

에세이 한영 번역 사례분석을 통한 인간 번역가와 ChatGPT의 협업 가능성 고찰

민나래(충북대학교)

류기택(충북대학교)

1. 서론

영화 설국열차와 승리호에 비춰진 실시간 번역기계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4년,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통·번역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이러한 기술은 일상 속 현실이 되었다. 기술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도 증가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0대 이하 국민 중 20% 이상이 일상에서 ChatGPT 등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외국어 번역’이 전체 활용 목적 중 2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창재, 2024). 이는 기계번역 기술이 이미 대중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AI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 번역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점점 더 정교해지는 AI 번역 기술로 인해 인간 번역이 대체될 수 있다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직관과 문화적 감수성은 기술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번역 학계에서도 AI 번역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대체 혹은 저항을 넘어, 두 주체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AI 번역은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번역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번역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와 더불어, 그 잇는 방법과 과정이 바뀔 뿐이다(신지선, 2024, p. 75). AI를 번역가의 역할을 대체할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이제 인간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기술인 만큼 이를 새로운 기술적 파트너이자 협업 도구로서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 번역가와 생성형 AI, ChatGPT 간의 협업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다도(茶道)를 주제로 한 에세이 『북촌다실』의 실제 한영 번역 프로젝트 과정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연구의 출발점인 세 가지 질문— ① ChatGPT 번역의 주요 전략과 한계는 무엇인가, ② 인간 번역자는 이를 어떻게 수정·보완하는가, ③ 인간과 ChatGPT 간 번역 협업은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다.

2. 선행 연구

생성형 AI와 인간 번역가 간의 협업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계번역 기술이 어떤 기술적, 이론적 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번역이 단순한 언어의 변환이 아닌 문화적 맥락과 창의적 해석이 요구되는 작업임을 고려할 때, AI 번역 기술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은 인간-기계 협업의 지점과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계번역 기술의 발전 과정을 개괄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주요 연구 결과와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인간-AI 협업의 현실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1 기계번역 발전 단계

기계번역 기술의 전반적인 발전 흐름을 이해하고자, 아래 <표 1>과 같이

네 개의 주요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표 1
기계번역의 발전 단계

단계	시기	기술 유형	대표 사례
1단계	1968년-2000년대 초	규칙기반 기계번역 (RBMT)	SYSTRAN, Babel Fish 등
2단계	2000년대-2016년	통계기반 기계번역 (SMT)	초기 Google 번역
3단계	2016년-2022년	신경망 기계번역 (NMT)	Google NMT번역, Papago, DeepL 등
4단계	2022년-현재	생성형 AI기반 기계번역 (LLM)	ChatGPT, Gemini, Claude 등

첫 번째 단계는 시스트랜(SYSTRAN)¹⁾ 엔진을 기반으로 한 야후의 바벨 피쉬(Babel Fish)로 대표되는 규칙기반 기계번역(Rule-Based Machine Translation, RBMT)이 주를 이루는 시기이다. 인간의 번역을 대체할 신기술에 대한 기대와 달리, 결과물의 낮은 품질로 인해 정보의 충실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였고, 이로 인해 기계번역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관련 연구도 급감하게 되었다(임순정, 2012, p. 184).

두 번째 단계는 통계기반 기계번역(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SMT)의 시기로, 대용량 병렬 말뭉치로부터 학습된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번역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2016년 이전까지의 구글 번역이 대표적이며, 다양한 언어 쌍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데이터 구축의 어려움과 단어나 구 단위로 번역이 진행되어 자연스러운 문장 생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박찬준과 임희석, 2020, p. 272).

세 번째 단계는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의 시기로, 2016년 구글이 기존의 SMT 기반 번역에서 딥 러닝(Deep Learning)을

1) 시스트랜은 군사용 자동 번역 시스템, GAT(Georgetown Automatic Translation) 개발에 참여했던 피터 토마에 의해 1968년에 개발된 최초의 상업용 기계번역 시스템이다(배지연과 김수연, 2010, p. 110).

도입한 NMT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경망 기계번역은 병렬 코퍼스를 이용하여 문장을 전체 단위로 학습하고, 문맥과 의미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전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이유정, 2023, p. 98).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기계번역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과학, 공학 중심의 기술적 분야를 넘어, 번역학을 비롯한 인문학 전반에까지 그 연구의 외연이 확대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번역의 등장으로, 2022년 11월 ChatGPT의 출현을 기점으로 한다. 기존의 NMT 기계번역이 문장을 단위로 변환하는 대응적 번역에 그쳤다면, ChatGPT는 콘텐츠 생성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고정된 번역을 넘어 창의적 결과물을 생산하는 새로운 번역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이창수, 2023, p. 539-540).

2.2 신경망 기계번역 관련 연구

기계번역 관련 연구는 신경망 기계번역을 중심으로 한 1세대 AI 번역 연구와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계번역 연구로 나누어 전개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경망 기계번역에 대한 연구는 기계번역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긍정적 시선과 함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적 논의가 다수 이뤄졌다.

신경망 기계번역에 관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송연석(2018)은 기계번역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발에 소요되는 고비용 문제와 포스트 에디팅이 요구되는 기계번역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모든 종류의 번역을 기계번역이 대체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서보현과 김순영(2018)은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 유형을 크게 정확성(Accuracy), 가독성(Fluency), 통사구조(Syntax), 오타자(Typo)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오류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기업 연례보고서와 같은 정보적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의미 중심의 오류가 다수 발생하는 반면, 누락 오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승혜(2018)는 『채식주의자』 번역 사례를 통해 인간 번역과 구글 번역을 비교·분석하고, 복합적 요소가 많고 해석과 판

단, 창의적 재현이 요구되는 문학작품 번역에서 기계번역은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빈(2020)은 기계번역과 관련된 국내 인문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는데, 2011년부터 2020년 초까지 발표된 기계번역 관련 논문 121편의 연구가 오류 유형 분석, 인간 번역과의 비교, 교육적 활용, 포스트에디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오류 분석에 편중된 경향과 단순 비교 중심의 접근을 지적하며, 언어학적 분석의 강화, 교육적 맥락에서의 구체적 변인 설정, 인식 조사 대상의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3 ChatGPT 번역 관련 연구

신경망 기계번역은 일정 수준의 정확성과 문맥상의 자연스러운 표현 구성에는 도달했으나, 문학적 해석이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텍스트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LLM 기반의 생성형 AI, ChatGPT의 등장은 번역계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최근 ChatGPT 번역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ChatGPT의 번역 교육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 ChatGPT 번역의 오류 양상에 대한 분석, 문학 번역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이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기존 기계번역과 차별화된 장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ChatGPT 번역에 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여범(2023)은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ChatGPT의 한-영 번역 정확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번역의 정확성이 사실적 텍스트, 문학작품, 속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성형 AI가 단순한 대응적 번역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점을 유용하게 평가하며, 영어교육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제시하였다. 박수정과 최은실(2023)은 문학작품에 나타난 아이러니에 대한 번역에 ChatGPT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고도의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아이러니 번역에 대한 ChatGPT의 가능성과 더불어, 특히 사용자와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러니를 넘어 다양한 장르에 대한 번역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유정(2023)은 ChatGPT의 현대 시 번역 오류 양상에 관한 연구에서 어휘의 누락 없이 가능한 원문을 빠짐없이 번역하려는 경향을 관찰했고, 기존 기계번역과 달리 대화를 통해 새로운 번역 결과물을 생성함으로써

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과 더불어 ChatGPT의 시적 표현에 대한 이해력과 창의적 번역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최효은(2024)은 과학잡지 표제 번역을 중심으로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에서 나타나는 명시화 현상에 관해 연구했다. 분석 결과, 인간 번역보다 ChatGPT 번역에서 더 적극적인 명시화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2.4 인간과 생성형 AI의 번역 협업에 관한 연구

AI 시대의 도래는 번역 협업의 범위를 인간 번역가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벗어나, 인간과 AI 간의 협업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AI 간의 번역 협업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은경(2025)은 협력 번역 연구 동향을 분석하며, 기존 연구들이 주로 기계의 도구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협력 번역에 집중됐음을 지적했다. 주로 기계번역 품질 평가나 인간 번역과의 비교, 교육적 활용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계와의 협업 구조 자체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밝혔다. 그는 협력 번역의 개념이 단순히 인간 간의 협업을 넘어, 기술 매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념적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영화(2025)의 연구는 생성형 AI와 인간 번역가 간의 창조적 협업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한 사례 연구다. 광고 번역이라는 높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작업에서 통번역 전공 학부생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툴인 코파일럿(Copilot)을 활용하여 번역을 수행하고, 인간 번역가로서 능동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AI가 제공한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프롬프트를 통해 번역의 방향성을 이끌어가기 위해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AI가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협력 파트너로 기능하기도 했다. 그의 연구는 창조적 접근이 요구되는 번역 교육 현장에 생성형 AI가 유의미한 협업 도구로 자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존 연구들이 번역 현장과 교육적 맥락에서 인간과 생성형 AI의 번역 협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조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양상과

방식에 대한 심층적 탐색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에세이 『북촌다실』의 한-영 번역 협업 과정을 분석하여 인간 번역가와 ChatGPT 간 협업의 실제 작용 방식과 그 한계 및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실제 수행된 번역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ChatGPT와 인간 번역가 간 협업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실증적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바탕이 된 프로젝트는 출판사의 의뢰로 진행된 약 8,700자 분량의 비문학 에세이 『북촌다실』의 한-영 번역으로, 단기간 내에 번역을 완료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북촌다실』은 한국 전통 다도 문화와 저자의 개인적 성찰이 교차하는 독특한 성격의 에세이이다. 출판사는 이 책을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번역하여 출간하고자 했으며, 영문판의 주요 독자는 영어권 국가의 일반 독자와 저자가 운영하는 다실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으로 상정하고 기획되었다.

번역을 수행한 C 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한국인 교수와 대학원생은 본 프로젝트를 ChatGPT를 활용한 협업 번역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인간과 AI 간 번역 협업의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설정 배경에는 단기간에 번역을 완성해야 했던 시간적 제약과 더불어, 번역 대상 텍스트의 독특한 성격, 그리고 인간-AI 간 번역 협업에 관한 연구자의 학문적 관심이 자리한다. 『북촌 다실』은 비문학 에세이의 특성상 정보중심이면서도 동시에 표현중심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일상적이고 평이한 서술로 구성되었으나 동양적 정서와 심미적 표현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직관적 전달과 창조적 해석을 동시에 요구하는 텍스트적 특수성을 지닌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의 텍스트는 AI 번역의 효율성과 한계, 그리고 인간 번역자의 개입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번역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전 과정을 관찰·분석할 수 있었던 점은, 인간과 AI

간 번역 협업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적 토대가 되었다.

생성형 AI 중 ChatGPT를 협업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프로젝트 수행 당시 가장 널리 활용되던 번역·텍스트 생성 도구이자, 단순 기계번역을 넘어 지속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간 번역가와와의 협업 가능성을 검토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은 ChatGPT의 번역 활용 가능성과 상호작용적 협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조망했으나, 실제 협업 과정의 양상에 대한 탐구는 아직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보완하며, 인간과 AI의 협업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제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자는 ChatGPT-4o를 활용하여 다양한 번역 결과물을 추출·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하나의 초벌 번역을 완성하여 인간 번역자에게 제공하였다. 인간 번역자는 이를 기반으로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간 번역자는 프롬프트를 통한 상호작용을 위해 ChatGPT를 추가 활용하였으며, 감수 단계에서도 오류나 문법 점검을 위해 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인간 번역자로부터 최종 번역본을 제공받아 분석하였으며, 직접 관찰한 협업 번역 과정과 더불어 인간 번역자와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인간-AI 협업 과정의 구체적 양상을 심도 있게 조사하였다.

3.2 연구 대상 텍스트

그림 1

『북촌다실』 책 이미지 (북촌다실, 2024)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텍스트는 전통 다도(茶道)를 주제로 한 저자의 경험과 정서가 담긴 비문학 에세이로, 일상적이고 평이한 언어로 구성되었으나 동시에 동양적 사유와 정서가 반영된 심미적 표현이 곳곳에 내포된 글이다. 이 책은 문학작품에 흔히 등장하는 고도의 수사적 장치나 다의성보다는, <그림 1>과 같이 시각 이미지(사진)와 서술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독자의 상상력을 유도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번역자는 언어적 전환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텍스트 간 조응 관계를 고려하여, 원문의 분위기와 의미를 적절히 전달함으로써 목표문화 독자의 감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ChatGPT는 목표문화에서 사용되는 고빈도 어휘와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도에 담긴 정서적 맥락과 동양적 사유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구적 수사로 인해 원문의 정서나 뉘앙스가 왜곡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간 번역가의 섬세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텍스트적 특성과 번역 과정은 인간 번역가와 AI 간의 상호보완적 협업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사례로 작용하며, 번역 현장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조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4. 분석 결과

4.1 ChatGPT 한-영 번역의 전략과 경향

본 연구자는 “서울 북촌에서 다실을 운영하고 있는 티 마스터의 십여 년의 기록과 다도에 관한 철학을 담은 에세이 『북촌다실』의 한-영 번역을 도와줘”라는 기본 프롬프트를 제시한 뒤, 원문의 단락을 순차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번역 결과를 생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여러 대안 번역을 비교·검토하였으며, 그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번역 결과를 선택하고 통합하여 ‘AI 초벌 번역’(AT: AI-generated Translation)을 도출하였다. 인간 번역자는 제공받은 AI 초벌 번역을 기반으로 수정·보

완 과정을 거쳐 ‘최종 번역’(HT: Human-refined Translation)을 완성하였다.

ChatGPT를 활용하여 생성한 초벌 번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과정에서 발견된 ChatGPT 한-영 번역의 주요한 전략과 경향을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도출할 수 있었다.

4.1.1 목표문화 독자 중심

분석 대상 텍스트에는 ‘다도’, ‘다실’, ‘다화’, ‘행다(行茶)’, ‘투화(投化)’, ‘노지’ 등 다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고유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ChatGPT의 번역 결과에서는 이러한 고유어를 한국식 표기로 음차 번역하기 보다는, 목표문화 독자에게 익숙한 어휘나 표현으로 조정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다도’는 ‘The way of Tea’, ‘Tea’, ‘Tea Culture’, ‘Tea Ceremony’ 등 문화적 개념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으로 번역되며 ‘Dado’로 음차 번역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행다(行茶)’의 경우에도 인간 번역가가 ‘Haengda’라는 고유 표기를 그대로 살린 것과 달리, ChatGPT는 ‘Performing Tea’ 또는 ‘The Act of Tea’ 같이 행위 중심의 의미 번역을 제시했다.

흥미롭게도 일본식 다도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 ChatGPT가 오히려 음차 번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다실의 정원을 나타내는 ‘노지’는 ‘roji, the teahouse garden’으로 번역되었고, ‘일기일회(一期一會)’는 일본식 표기인 ‘ichigo ichie(一期一會)’로, ‘투화(投化)’는 한국식 표기가 아닌 일본식 표기인 ‘Touka(投化)’로 처리되었다. 이는 일본식 다도 용어가 영어권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지고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ChatGPT는 목표문화의 문화적 인지 수준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더욱 일반화된 표현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한국식 표기는 지양하면서도 일본식 다도 용어는 음차로 수용하는 이중적 전략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어권 독자에게 친숙한 표현을 우선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hatGPT가 ‘목표문화 독자 중심’이라는 번역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1.2 가독성을 고려한 변형 - 문장 구조 재배열

ChatGPT 번역은 전반적으로 가독성과 문맥의 흐름을 우선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문의 긴 문장을 두세 개의 짧은 문장으로 분절한 뒤, 의미가 분산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원문에 담긴 감성적 요소를 직관적이고 명료한 언어로 구성하여 정돈된 문장을 구현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서적 여운보다는 설명적 성격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예시 1>

원문: 어릴 적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 무렵 서촌의 골목길에서 문득 올려다본 노을 지기 직전,
夕陽의 하늘은 신비로운 보랏빛이었습니다.

그 오묘한 보랏빛이 어린 시절의 뇌리에 각인돼
노을 지기 직전의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생겼지만
사는 동안 그 하늘의 보랏빛은 몇 번 만나지 못했습니다.

AT: As a child, on my way home after parting with friends,
I once glanced up at the sky in the evening, walking through the
alleyways of Seochon, just before the sunset faded away.
The twilight sky shimmered with a mysterious violet hue, a color so
enchanting that it engraved itself into my young memory.
Since then, I've developed a habit of looking up at the sky just before the
sun sets, hoping to catch that same violet hue again.
Yet, throughout my life, I've encountered it only a handful of times.

HT: When I was a child, walking home after saying goodbye to my
friends, I happened to glance up at the sky above the alleys of Seochon at
dusk.

The twilight sky shimmered with a mysterious violet hue—
a color so enchanting that it became engraved in my young heart.
Since then, I've developed a habit of gazing at the sky before sunset,
hoping to catch a glimpse of that same violet hue once more.
Yet throughout my life, I've only seen it a few fleeting times.

원문은 두 개의 긴 문장 안에 시간, 장소, 행위, 감정 등의 요소가 압축되어 시·공간적인 묘사와 정서적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이다. ChatGPT는 두 개의 긴 원문을 총 네 개의 문장으로 분절하고 의미 단위 별로 분리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가독성과 리듬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번역했다. 전반적으로 의미의 손실 없이 원문의 정서와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으며, 특히 감정의 흐름을 단계화하고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ChatGPT의 번역이 단순한 문장 치환을 넘어 원문에 담긴 정보의 흐름과 감정의 리듬을 조율하려는 능동적인 재구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원문의 구조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며 번역하는 경향을 보이는 NMT 기반 번역 AI(DeepL, Papago)와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4.1.3 의역

일반적으로 AI 번역은 원문 구조와 어휘에 충실한 직역 중심의 결과물을 산출하며, 문장 구조나 표현을 과감히 변형하는 의역 전략은 인간 번역가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실제로 DeepL이나 Papago 같은 기존 NMT 기반 상용 번역기는 문법적으로 매끄러운 직역을 우선시하며, 이로 인해 표현이 다소 어색하거나 문화적 맥락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ChatGPT의 번역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인식과 달리 단순한 대응 번역을 넘어, 목표문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미를 부여하거나 문장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등 의역 전략이 활발히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앞서 제시한 <예시 1>에서 원문의 ‘노을 지기 직전의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생겼지만’이라는 문구는 ‘Since then, I’ve developed a habit of looking up at the sky just before the sun sets, hoping to catch that same violet hue again.’으로 번역되었다. 원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ChatGPT는 ‘hoping to catch that same violet hue again’이라는 문장을 임의로 추가하여 행위에 내재된 정서적 동기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유도하는 의역 전략을 택했다.

흥미로운 점은 ChatGPT가 문법적으로 직역이 가능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고 의미의 흐름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의역을 제시하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예시 2>

원문: 병에 무심히 던졌을 때 (投化), 꽃가지가 흔들리며
알아서 자기에게 맞는 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가장 다화 다운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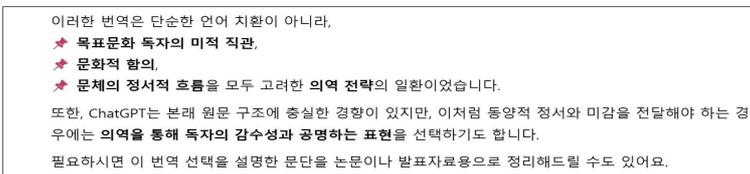
AT: When the flowers are dropped nonchalantly into a vase (Touka),
the branches sway, finding their natural balance and revealing their own
inherent beauty.
Isn't this the essence of tea flowers?

HT: When flowers are casually placed into a vase (Tuhwa),
the branches gently settle into their natural place, revealing their own
graceful lines.
Isn't this the most natural unfolding of Dahwa?

원문의 ‘무심히 던지다’, ‘알아서’, ‘선의 아름다움’ 등의 표현은 한국어의 애매하고 함축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는 표현이다. ChatGPT는 이를 각각 ‘dropped nonchalantly’, ‘finding their natural balance’, ‘inherent beauty’로 번역하며, 직역보다는 개념적 해석을 택해 표현의 자연스러움과 미학적 맥락을 동시에 구현하였다. 특히 ChatGPT는 원문을 직역할 경우, 목표문화 독자에게 부자연스럽게 전달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고자 위와 같은 의역을 선택했음을 <그림 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의역 관련 ChatGPT 캡처 이미지



이는 원문에 대한 단순한 기계적 대응을 넘어, 문장 전체의 의미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어 특유의 암시적이고 미학적인 표현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ChatGPT는 학습된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장 내 의미 요소 간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문화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인식한다. 이로 인해 직역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의 왜곡이나 표현의 어색함을 사전에 감지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의역을 생성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4.2 ChatGPT 번역의 한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ChatGPT는 목표문화 독자의 수용성을 고려한 표현, 가독성을 높이는 문장 재배열, 정서적 함의를 살리는 의역 등 여러 전략적 강점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AI 번역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본 연구에서도 몇 가지 구조적 한계와 의미 해석상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는 동음이의어 등의 단순한 판단 오류로 인한 기초적 오류가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해석하고 강조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번역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ChatGPT 번역의 한계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인간 번역자가 수정·보완한 최종 번역과 비교해 본다.

4.2.1 문장 구조 해석의 오류 - 주절/종속절 관계 오인

ChatGPT 번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 중 하나는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를 오인하는 현상이다. 특히 시간적 배경, 조건절, 혹은 부차적 서술로 기능하는 종속절이 행위의 목적이나 중심 내용으로 잘못 해석되면서, 문장 내 의미의 위계가 전도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예시 3>

원문: 조선 문인들도 국화가 피면 어울려 시와 술을 즐기곤 했다.

AT: Joseon literati often gathered to appreciate chrysanthemums, enjoying poetry and drinks in their presence.

HT: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would gather to compose poetry and

share drinks when chrysanthemums were in full bloom.

<예시 3>의 AI 초벌 번역은 원문의 조건적 시간 표현인 ‘국화가 피면’이 ‘to appreciate chrysanthemums’라는 목적 구문으로 전환되며 의미가 왜곡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문의 중심 행위인 ‘시와 술을 즐기곤 했다’가 부차적 요소로 전락하고, 배경과 시점에 해당하는 ‘국화가 피면’이 번역문에서 행위의 목적이자 중심 내용으로 부각되었다.

ChatGPT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법적 연결 어미(~면, ~면서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장 전체의 의미 흐름과 구조적 관계를 고려하여 주절과 종속절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목표문화 독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문장을 생성하려는 경향과 맞물리면서, 원문과는 다른 중심-주변 관계가 형성되어 의미의 전도 혹은 강조점이 흐려지는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오류는 ChatGPT가 문장 구성이나 맥락의 해석 면에서는 여전히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인간 번역가는 ‘국화가 피면’을 ‘when chrysanthemums were in full bloom’으로 번역하여 시간적 배경으로 처리하고, ‘시와 술을 즐기곤 했다’를 문장의 중심 내용으로 배치함으로써 원문이 의도한 의미 구조를 충실히 복원하였다. 이처럼 인간 번역가는 단순한 오류 수정에 그치지 않고, 문맥과 의미 흐름을 정교하게 해석하며 중심 정보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번역문을 조정하였다.

4.2.2 문맥 혼동 및 주체 판단의 오류

두 번째는 ChatGPT가 문맥 속에서 문장의 주체 혹은 주된 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전문 작가의 텍스트가 아닌, 다실 운영자의 구어적이고 비전문적인 에세이라는 점은 이러한 AI의 한계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문장 구조가 비표준적이거나 논리 전개가 불분명한 경우, ChatGPT는 그 불명확성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학습된 일반적 패턴에 따라 그대로 반영하거나 오히려 왜곡하는 방향으로 번역할 가능성이 있다.

<예시 4>

원문: 이곳을 찾는 이들이 허리를 잡고 웃을 정도의 밝고 유쾌한 웃음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소소헌>이라고 지었습니다.

AT: With the hope that all who visit this place will find it filled with bright and cheerful laughter—laughter so hearty it makes them hold their sides—I have named it So So Heon(笑昭軒).

HT: With the hope that this place will be filled with bright and delightful laughter—laughter so hearty that visitors hold their sides in joy—we named this place “So So Heon,” the Pavilion of Bamboo Laughter.

<예시 4>의 원문은 ‘소소헌’이라는 공간이 방문객들의 밝고 유쾌한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그러나 AI 초벌 번역은 방문객이 이 공간을 웃음이 가득한 곳으로 인식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원문이 지닌 의도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원문의 ‘이곳을 찾는 이들이’와 ‘웃음이 가득한 곳’이라는 두 구절이 모두 주격 조사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구조의 중의성, 그리고 구어적인 문장 구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ChatGPT가 문장의 주체를 혼동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인간 번역가는 문맥 속에서 중심 주체가 ‘공간’임을 파악하고, 방문객의 인지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웃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이라는 원문의 의미 구조를 복원하였다. 더 나아가, “So So Heon”이라는 고유명사에 내포된 한자의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the Pavilion of Bamboo Laughter’라는 부연 설명을 창의적으로 덧붙였다. 이는 단순 음차를 넘어 고유명사를 문화적으로 재맥락화함으로써, 영어권 독자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인간 번역가는 문장의 구조적 불명확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의미를 재구성한 것과 동시에, 문화적 함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원문에 담긴 의도를 더욱 풍부하게 전달하였다.

일반적으로 번역가는 원문이 반드시 완벽하지 않더라도 비판적 독해를 통해 문장 구조의 불명확성을 인지하고, 문맥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보다 자연스럽게 정확한 번역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번역가는 단순한 의미 전달자가 아니라 원문의 신뢰성과 표현의 완성도를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 의미를 재구성하여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다.

이 사례는 ChatGPT가 문장 속 주체 판단, 복잡한 겹문장의 관계 해석, 또는 원문 내 잠재적 결함을 인식하고 바로잡는 차원의 판단력에는 도달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인간 번역가가 비판적 독해와 문맥적 통합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4.2.3 저자의 의도 및 정서적 맥락의 누락

세 번째는 ChatGPT가 문장의 구조와 표면 의미를 비교적 정확하게 처리하였음에도, 작가의 의도나 정서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러한 오류는 명백한 오역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독자가 받아들이는 의미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번역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

<예시 5>

원문: 찻자리에는 주인과 손님이 따로 없습니다.

차회는, 주최하는 주인과 손님이 함께 아름다움에 공감하며

일상의 순간을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순수함과 정화됨을 추구하는 茶를 매개체로 하는 최상의 의식입니다.

AT: At the tea table,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host and guest.

A tea gathering is the highest form of ceremony, where tea serves as the medium. It pursues purity and tranquility, transforming ordinary moments into joyful ones, as host and guest come together to share an appreciation of beauty.

HT: In a tea gathering, there is no host and guest defined as such.

A tea gathering is the highest form of ritual—an expression of purity and renewal—where tea becomes the medium, bringing host and guest together in a shared appreciation of beauty, transforming ordinary moments into moments of happiness.

AI 초별 번역은 원문의 ‘무빈주(無賓主)’, 즉 ‘찾자리에는 주인과 손님이 따로 없다’는 표현을 표면적으로 충실히 번역했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는 ‘구분 없음’은 단순히 역할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 애초에 ‘주인’과 ‘손님’이라는 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동양적인 철학적 발상에 기반한다. 인간 번역자는 이를 “there is no host and guest defined as such”라는 표현으로 전환함으로써, 단순히 경계가 흐려졌다는 차원을 넘어 그러한 구분 자체가 불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차를 매개체로 하는 의식’이라는 문장에서 ‘매개체’는 이중적인 기능을 한다. 차는 1) 주인과 손님을 연결하는 관계적 매개체 2) 일상적인 시간을 비일상의 순간으로 전환시키는 시간적 매개체,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그러나 ChatGPT 번역에서는 문장 구조상, 후자의 시간적 매개체의 의미만이 강조되어, 차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엮는 상호적 매개체라는 저자의 메시지가 누락되거나 희미해졌다. 반면, 인간 번역자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장 구조를 재배열하고, “bringing host and guest together”라는 구절을 삽입하여, 차가 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작가의 의도와 정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사례는 ChatGPT가 문법적 정확성과 정보 전달에는 효과적일지라도, 철학적·정서적 깊이, 더불어 저자의 의도까지 섬세하게 포착하고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지점에서 인간 번역자의 창의적·해석적 역할이 불가피함을 확인시켜 준다.

4.3 인간 번역과 ChatGPT의 협업 과정: 프롬프트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초별 번역 과정은 연구자와 ChatGPT가 프롬프트를 매개로 반복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과정을 거치며 번역문을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는 협업의 양상을 띤다. 연구자는 번역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지닌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ChatGPT로부터 다층적인 번역 제안을 이끌어 냈고, 그 결과물을 다시 평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번역을 정교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ChatGPT의 표현 제안 능력과 연구자의 문화적·해석적 판단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인간과 ChatGPT 협업 번역의 구체적 양상은 사용된 프롬프트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프롬프트의 기능과 의도에 따라 협업 과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4.3.1 언어 표현 개선²⁾

표 2
언어 표현 개선 프롬프트

언어 표현 개선	
세부 유형	프롬프트 사례
다양한 표현 제시 / 문체 조율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 마음’에 대한 다양한 번역 표현 제시해줘 • ‘무심한’에 대한 다양한 번역 표현 제시해줘 • swept away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제시해줘 •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해줘 • 이 부분을 서정적으로 바꿔줘
문장 구조 수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문의 주절/종속절 관계가 번역에서 뒤바뀐 것 같아 • 이 부분은 능동태로 바꿔줘 • 한 문장으로 바꿔줘

첫 번째 유형은 연구자가 언어 표현을 다양화하거나 보다 적절하게 조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포함한다. ChatGPT의 강점 중 하나는 주어진 단어나 문장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대안 표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인데, 연구자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언어 표현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 유형은 <표 2>와 같이, 1) 다양한 표현 제시 혹은 문체 조율에 대한 요청, 2) 잘못된 문장 구조로 인한 수정 요청 등의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다양한 표현 혹은 문체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에 ChatGPT는 보통 4-5개, 많게는 그 이상의 표현을 제시하며, 이는 최종 번역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번역자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아이디어의 원천이 된다. 후자의 경우, 번역문에서 잘못된 주절-종속절 관계, 부자연스러운 피동형 문장, 과도한 문장 분절 등이 발견되었을 때, 번역자가 프롬프트를 통해 구조 수정을

2) 본 절의 ‘언어 표현 개선’이라는 유형은 선영화(2025)의 논문에서 제시한 프롬프트 유형 구분을 참조하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요청하고, ChatGPT는 이에 맞춰 능동태 전환, 문장 병합 또는 순서 조정을 제안한다.

언어 표현 개선 프롬프트는 단순히 기계번역 결과를 수용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넘어, 프롬프트를 매개로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며 번역의 방향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협업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4.3.2 영어 표현 감수

표 3
영어 표현 감수 프롬프트

영어 표현 감수	
세부 유형	프롬프트 사례
원어민 관점의 뉘앙스에 대한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deeper happiness settled within me’ 라는 표현 어색해? • recede/retreat, await/anticipate, nonchalant/uncontrived 의 뉘앙스 차이 설명해줘 • 한 문장으로 연결된 것과 쉼표나 줄 바꿈 사용한 문장에 대해 원어민은 어떻게 느껴? • 향기가 손님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돼? • Doesn't the four...?!/ Wouldn't the four...? 둘 중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워?
문법에 대한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완료와 과거완료를 썼을 때의 뉘앙스 차이 설명해줘 • 어색한 부분 말해줘 • 문법적인 오류가 있으면 짚어줘

두 번째 유형은 영어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감수 요청으로, 문장이나 어휘가 원어민 화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묻는 프롬프트로 구성된다. 이 유형은 대체로 ‘어색하지 않은지’,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문법적으로 정확한지’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형태를 띠며, 문법적 정확성뿐 아니라 뉘앙스, 어조, 문장 호흡 등에 대한 피드백을 포함한다.

예컨데, ‘더욱 행복감으로 침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원문을 번역한 ‘the deeper happiness settled within me’가 원어민에게 자연스러운지 확인하는 질문이 있었다. ChatGPT는 해당 표현이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어민의 입장에서 “deeper happiness”와 “settled”의 조합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감정의 흐름을 보다 자연스럽게 서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대체 표현을 제안함으로써, 단순한 오류 수정 이상의 감수 역할을 수행하였다.

권은희와 성초림(2016)은 바람직한 공동번역의 형태로, 단순히 한국인 번역자의 1차 번역에 원어민 감수자가 수정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인 번역자가 원작이 담긴 문화적 맥락과 ‘우리’의 정서를 최대한 충실히 담아내고, 이를 원어민 번역자와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식으로 전달해내는 번역과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번역을 단순한 언어 전환 작업이 아닌 의미 협상과 문화적 소통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본 연구가 시도한 인간과 ChatGPT 협업 번역 또한 이러한 관점을 일정 부분 공유한다. 연구자는 번역 과정에서 프롬프트를 통해 ChatGPT에게 문장 구조, 어휘 선택, 문화적 뉘앙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감수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ChatGPT의 응답을 바탕으로 번역문의 방향성을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ChatGPT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공동번역의 원어민 번역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ChatGPT는 표현의 자연스러움, 문법적 정확성, 문화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번역문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4.3.3 문화적 맥락 보완

표 4
문화적 맥락 보완 프롬프트

문화적 맥락 보완	
세부 유형	프롬프트 사례
한국인 관점에서 문화적 맥락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산모시는 따로 선물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함’에 들어있던 물건이야 • 원문의 내용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12년마다 동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12년 주기로 그 해의 동물이 돌아온다는 의미로 번역해줘 • 이 문장에서는 행복함을 강조하는 것 같아 • 문맥상 ‘처음’이라는 말은 빼도 될 것 같아 • ‘수행하는 삶을 산 뒤’의 의미가 아니라, ‘수행하듯 지내다’의 뜻이야
누락된 원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되었다’는 의미가 번역에 빠져있어

포인트 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다’는 에세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니까 음차번역 해줘 • ‘일기일회’라는 사자성어와 더불어 결심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번역해야 해
의역에 대한 조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forgettable과 같은 의역을 자제하고 이 문장은 직역에 가깝게 번역해줘 • ‘or anything natural’ 이 부분은 어색해. 왜냐하면 원문은 꽃이든 풀이든 자연스러운 걸 쓴다는 의미야

세 번째 유형은 한국어 원문이 지닌 문화적 맥락이나 정서적 뉘앙스를 보완하기 위한 프롬프트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텍스트는 전통 차 문화와 한국적인 미감을 반영한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비문학 에세이로, 이러한 문화적 함의를 언어적으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번역의 핵심 과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ChatGPT는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정서적 분위기를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데 한계를 보이며, 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을 담거나 표현의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프롬프트를 통해 저자의 의도와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번역에 개입한다. <표 4>는 이러한 문화적 보완을 위한 프롬프트를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첫째, 한국인 연구자가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며 번역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한산모시가 따로 선물한 것이 아니라 혼례를 위한 ‘함’에 포함되어 있는 전통적 구성품임을 설명하거나, 띠 동물 관련 문장에서 “12년마다 동물이 바뀐다”는 원문의 부정확함을 지적하며 12간지의 순환 개념에 맞게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원문의 중요한 개념이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되었을 때 이를 부연 설명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개념인 ‘행다(行茶)’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도록 음차 번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번역문의 의미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ChatGPT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요소들을 연구자가 적극 보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는 ChatGPT의 의역 경향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프롬프트이다. 예를 들어, ‘차와 함께한 계절들’이라는 원문을 ChatGPT가 ‘and the seasons I spent with tea remain unforgettable’

로 번역을 제시했을 때, 원문의 지닌 담담한 어조에 비해 지나친 감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좀 더 절제된 직역 형태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문화적 맥락 보완 프롬프트는 단순한 번역 오류의 수정이 아니라, 연구자가 AI가 놓칠 수 있는 문화적 정서와 함의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번역문이 단지 언어적 정확성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 간 이해와 전달이라는 번역의 본질적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협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4.4 인간-ChatGPT 협업 번역 결과

이처럼 본 연구자는 다양한 프롬프트를 활용해 ChatGPT와 협업하면서 AI 초벌 번역을 구성하였고, 인간 번역자가 이를 바탕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최종 번역을 완성하였다. ChatGPT가 초벌 번역을 통해 번역의 기본 구조와 방향성을 제시하면, 인간 번역자는 그 위에 시적 표현을 가미하거나 문화적 함의를 보완하고,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번역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에 본 절은 최종 번역 결과물에 나타난 인간과 ChatGPT 협업 번역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다.

4.4.1 초벌 번역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

ChatGPT가 제시한 초벌 번역 중 일부는 문맥이나 의미 전달, 어조 등이 충분히 적절하여 큰 수정 없이 최종 번역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문장들은 비교적 간단하거나 대체로 설명적이고 사실 전달에 초점을 둔 표현으로 인간 번역자의 해석이나 보완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이다.

<에시 6>

원문: 옛사람들은 매화는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AT: This is why the ancients said, "The plum blossom does not sell its fragrance"

HT: 동일

<예시 7>

원문: 일본은 花道에서 꽃을 이케바나 라고 한다. ‘꽃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뜻!

AT: In Japan’s traditional floral art (Hwado), flowers are called *Ikebana*, meaning “the flowers have gained new life.”

HT: 동일

이러한 사례는 비록 소수이지만, ChatGPT의 초벌 번역이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설명적이고 정보 중심의 문장에서는 인간 번역자의 개입 없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번역문을 산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4.2 초벌 번역을 활용, 수정한 경우

ChatGPT가 제시한 초벌 번역은 번역문의 기본 구조와 어휘 선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간 번역자는 이를 기반으로 미묘한 표현 조정이나 세련화 작업을 거쳐 최종 번역을 완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유형은 AI의 직역이 의미 전달에는 효과적이지만, 반복적인 표현 사용이나 어조의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해 조율이 필요한 경우이다.

① 어휘 다양화

<예시 8>

원문: 저에게 있어 다도의 세계는 ‘**늪**’이었습니다.
처음 이 세계로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이미 제가 끝이 없는 **늪**으로 빠져들게 됐음을 알았습니다.

AT: For me, the world of Dado was a ‘**swamp**’.
From the moment I first stepped into this world, I knew I was being drawn into an **infinite swamp**.

HT: The world of Dado was like a “**swamp**” to me.

From the moment I stepped into this world, I knew I was being drawn into endless depths

<예시 8>의 AI 초벌 번역은 해당 페이지에 ‘swamp’를 네 차례 반복 사용하면서 은유적 표현의 중복으로 인해 문장의 부자연스러움을 초래했다. 그러나 인간 번역자는 이러한 반복을 피하고, ‘swamp’를 ‘depths’로 치환함으로써 문맥상의 어색함을 줄이고 문장에 세련미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인간 번역자는 초벌 번역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표현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AI 번역의 단조로움을 보완한다.

② 어조 조정

인간 번역자는 초벌 번역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원문의 정서와 감성을 살리기 위해 어조를 조정하거나 문장 구조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번역문의 표현력을 높이기도 한다.

<예시 9>

원문: 그 여정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세계에 빠져 화살처럼 흘러간 시간,
그리고 차와 함께한 계절들.

AT: The journey was truly blissful.
Enchanted by the beauty of tea, time flew like an arrow,
and the seasons unfolded gently, with tea by my side.

HT The journey was truly blissful!
Time flew by like an arrow as I was enchanted by the beauty of tea,
carrying me gently through the seasons I spent with it.

<예시 9>의 AI 초벌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담고 있으나, 문장이 단편적으로 나열되어 감정의 흐름이 다소 단절되는 인상을 준다. 이에 인간 번역자는 구조를 재조정하고 시적 어조를 강화하여 세 문장을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통합하였다. 특히 “carrying me gently through the seasons I

spent with it”라는 표현은 “차와 함께한 계절들”의 정서적 함의를 풍부하게 살리는 동시에, 전체 문장의 운율적 완성도를 높인다. 이러한 변화는 어휘의 다양화뿐 아니라 문장의 리듬 및 감성을 조율하여 번역문의 예술적 깊이를 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4.4.3 직역을 의역으로

본고는 4.1에서 ChatGPT의 번역 전략 중 하나로 의역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원문 구조를 따르는 AI 번역의 특성상 직역 스타일의 초별 번역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ChatGPT의 직역은 의미 전달에는 유용하지만, 정서적 함의나 문학적 울림이 중요한 문장에서는 다소 평면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간 번역자는 원문의 정서를 살리기 위해 문장을 재구성하거나, 의미를 보완하기 위한 정보를 추가하여 의역을 시도하게 된다.

<예시 10>

원문: “일단 의식을 갖게 되면 道는 고행이다.

의식을 사용하여 의식에 머무르지 않는 세계를 나타내어야 한다.

이것이 어려움 중의 어려움이나 직면해야 하는 것이다”

AT: “Once consciousness takes hold, the Way (道) becomes an arduous journey. One must use awareness to express a world that transcends awareness itself. This is the greatest difficulty we must face.”

HT: “Once consciousness arises, it becomes **an obstacle**, turning the practice of Tao (The Way) into a path of hardship. To express a world that transcends consciousness **through the act of consciousness itself** is the greatest challenge of all—yet one we must confront.”

AI 초별 번역은 문장을 충실히 옮긴 직역 형태로서, 의미는 전달되지만 원문이 지닌 철학적 요소나 수사적 울림은 다소 약하게 느껴진다. <예시 10>에서 ‘의식’은 장애물이자 동시에 매개체라는 모순적인 역할을 지닌다. 따라서 단순한 직역만으로는 원문이 지닌 철학이 드러나기 어렵다. 이에 인간 번역자는 초별 번역의 문장 구조를 조정하고 “obstacle”, “through the act

of consciousness itself’ 등 원문에 없는 정보를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수사적 깊이를 부여하였다. 이 예시는 단순한 언어의 치환을 넘어, 모순어법의 재현을 위해 인간 번역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4.4.4 저자의 의도를 반영한 번역 조정

앞서 4.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hatGPT의 번역은 저자의 의도나 정서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문화적 함의나 특수성을 담고 있는 문장을 ChatGPT가 해당 맥락과 상관없이 일반화하여 표현하는 것에 기인한다. 다음 사례는 일본의 다도 서적을 인용한 문장에서 저자의 메시지가 ChatGPT 번역에서 어떻게 평면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인간 번역자가 어떻게 복원했는지를 보여준다.

<예시 11>

원문: 추서- 본문 중 다도의 역사적 특성상 오랜 茶 역사를 지닌 중국으로부터 다도와 禪 사상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차 문화를 철학과 정신사상으로까지 승화시킨 일본 茶書 내용이 다수 인용되었음을 밝힙니다!

AT: Postscript- Due to the historical nature of Dado, I acknowledge that much of this book quotes Japanese tea writings (茶書), which embraced China’s Tea culture with a long history and the Zen(禪) philosophy, transcending them into a distinct philosophy and spiritual ideology.

HT: Postscript- Due to the unique historical legacy of Dado, I must acknowledge that some of the content referenced in this book is drawn from Japanese tea writings (茶書), which have embraced China’s long-standing tea culture and Zen (禪) philosophy, transforming them into a distinct philosophy and spiritual thought!

<예시 11>의 원문은 표면적으로 단순한 출처 표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감수성이 내포된 고난이도 의미 조율의 사례이다. 다도의 역사적 특성상 일본의 다서(茶書)를 참조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

택이었음에도, 저자는 한국 독자들이 이 사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을 고려하여 에세이 서두에 관련 내용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저
자가 에세이 말미의 추서(postscript)에서 이를 다시 강조한 것은 단순한 출처
명시를 넘어 독자와의 정서적 거리를 고려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AI 초별 번역은 “다도의 역사적 특성”을 “historical nature of Dado”로 번
역하여 다도 문화가 일본 기원 혹은 일본 중심으로 오해될 여지를 남겼다.
또한 “much of this book quotes Japanese tea writings”라는 번역 표현은 본문
전반이 일본 다서 중심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저자의 조심스
러운 태도나 한국 독자를 의식한 정서적 뉘앙스를 반영하지 못했다.

반면, 인간 번역가는 ‘다도의 역사적 특성’을 단순히 historical nature나
historical background로 번역할 경우, 다도 전체가 일본의 전유 문화로 일반
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unique”와 “legacy”라는 표현
을 선택하여, 일본 다도가 중국의 영향을 바탕으로 발전했지만 고유한 철학
과 정신 사상으로 승화되었으며, 지금은 하나의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의미 전달을 넘어서, 저자의
의도와 독자 반응까지 고려한 정교한 조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추서 부분에 대해 인간 번역자는 저자의 의도와 번역 표현 간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상당한 고민과 조정을 거쳤음을 밝혔다.

5. 결론

본 연구는 “ChatGPT 번역의 주요 전략과 한계점은 무엇인가?”, “인간 번
역자는 이를 어떻게 수정·보완하는가?”, “인간과 ChatGPT 간의 번역 협업은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비문학 에세이 『북촌다실』의 실제 한-영 번역 과정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ChatGPT-4o을 활용하여 완성된 초별 번역을 인간 번역자에게 제
공하였고, 인간 번역자는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최종 번
역을 완성하였다.

분석 결과, ChatGPT는 목표문화 독자 중심의 표현 사용, 가독성을 높이

기 위한 문장 재배열, 의역 활용에서 강점을 보였다. 단순 대응 번역을 넘어 의미 부연과 문화적 수용성을 고려한 표현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주절/종속절 관계 오인, 문맥·주체에 대한 판단 오류, 저자의 의도 및 정서적 맥락 누락과 같은 한계 또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ChatGPT의 한계이자, 동시에 인간 번역가와와의 협업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번역 협업 과정에서 인간 번역자는 프롬프트를 매개로 ChatGPT와 반복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번역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ChatGPT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원어민 공동번역자 혹은 감수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프롬프트를 통한 상호 피드백 과정에서 문화적·해석적 판단이 교환되며, 전형적인 협업 번역의 양상이 형성되었다.

최종 번역본을 분석한 결과, 인간과 ChatGPT 협업 번역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초벌 번역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로 설명적이거나 사실 전달 위주의 문장에서 나타났다. 둘째, 초벌 번역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경우이다. ChatGPT의 번역에서 반복되는 어휘, 어조의 부자연스러움, 미묘한 뉘앙스 차이 등을 인간 번역자가 조정하여 완성도를 높인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인간 번역자의 창의적 개입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ChatGPT의 번역이 문화적 함의나 정서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때, 인간 번역자가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표현을 창출하여 원문의 철학과 정서를 구현한 사례로, 특히 문화·정서적 뉘앙스가 중요한 문장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세 유형은 ChatGPT가 일정 수준의 활용 가능성을 지니면서도, 인간 번역가의 해석과 창조적 판단이 여전히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ChatGPT의 명료한 표현 위에 인간 번역가의 정서적 감각과 문화적 섬세함이 더해지면서, 번역은 협업의 산물로 완성되었고, 이는 AI와 인간 번역가의 관계가 대체가 아닌 상호보완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ChatGPT와 인간 번역가의 협업 가능성을 실제 번역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데 있다. AI의 초벌 번역과 다양한 대안 제시 기능이, 인간 번역가의 해석, 조율 과정을 거쳐 더욱 감성적이고 완성도 높은 번역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에 기반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정량적 데이터 분석이 부족하고, 분석 대상이 에세이 장르에 한정

되며, 분석에 사용된 문장 수도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장르, 정량적 분석,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번역은 종종 ‘이중교배’ 또는 ‘결혼’으로 은유된다. AI 시대에 이 은유의 대상은 과거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관계를 넘어 인간과 AI의 결합으로 확장되었다(신지선, 2024, p. 74). 이러한 변화는 인간과 AI의 유기적 협업이 새로운 번역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협업을 위해서는 인간 번역가가 중심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AI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되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AI와의 협업에서 얻는 성과는 이를 활용하는 번역가의 질문 능력, 지식 수준, 문체 감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표현과 아이디어는 번역가의 선택과 조율을 통해 비로소 의미를 가지며, 번역가의 능동적인 개입은 번역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AI가 문장 단위의 번역을 제공하더라도, 전체의 맥락을 읽고 원문에 내재된 의도를 재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 번역가의 고유한 역할이다. 인간의 창의적 판단과 AI의 능력이 균형을 이룰 때, 인간-기계 협업 번역은 새로운 지평을 열며 앞으로 번역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북촌다실. (2024). 북촌다실 北村茶室. 북촌다실 출판사.

<2차 자료>

권은희, 성초림. (2016). 한국문학번역의 2인 공동번역체제에 관한 고찰. 스페인어문학, 81, 31-53.

마승혜. (2018). 문학작품 기계번역의 한계에 대한 상세 고찰. 통번역학연구, 22(3), 65-88.

박수정, 최은실. (2023). 챗GPT의 아이러니 번역 활용 가능성 고찰. 번역학연구, 24(2), 131-160.

- 박찬준, 임희석. (2020). 공공 한영 병렬 말뭉치를 이용한 기계번역 성능 향상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6), 271-277.
- 배지연, 김수연. (2010). 한영 기계 번역에 있어서 격 실현 현상 고찰. *언어과학*, 17(4), 99-120.
- 서보현, 김순영. (2018).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유형 고찰. *번역학연구*, 19(1), 99-117.
- 선영화. (2025). 생성형 AI와의 창조적 협업을 통한 학부 번역 교육. *통번역학연구*, 29(2), 165-200.
- 송연석. (2018). 기계번역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번역학연구*, 19(1), 119-145.
- 신지선. (2024). 번역 은유의 재해석: 역사적 맥락에서 AI시대 응용으로. *영어권문화연구*, 17(1), 61-79.
- 유창재. (2024. 3. 28.). 국민 17.6% “챗지피티 등 생성형 AI 서비스 써봤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5075
- 윤여범. (2023). ChatGPT의 한영 번역 도구로서의 정확성 분석. *한국초등교육*, 34(4), 215-231.
- 이상빈. (2020). 기계번역에 관한 KCI 연구논문 리뷰. *통역과 번역*, 22(2), 75-104
- 이유정. (2023). 현대시 인공지능(AI) 번역의 오류 양상 연구. *문화와 융합*, 45(10), 97-110.
- 이창수. (2023). 챗GPT 출현 이후 기계 번역과 인간 번역 간의 번역 문체 차이 변화 연구. *번역학연구*, 24(3), 539-561.
- 임순정. (2012).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본 통계기반방식 번역기의 특징. *통번역교육연구*, 10(3), 183-211.
- 최은경. (2025). AI 시대의 협력 번역(collaborative translation): 연구 동향과 개념적 확장. *통번역학연구*, 29(2), 399-421.
- 최효은. (2024). 대중과학의 영한 번역에 있어서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의 명시화(explicitation) 양상 고찰. *T&I Review*, 14(1), 149-175.

Exploring the potential for collaboration between human translators and ChatGPT: A case study of Korean-to-English essay translation

Narae Mi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Gi Taek Ryoo (corresponding author, gtryoo@chungbuk.ac.k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for collaboration between human translators and ChatGPT through a case analysis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Bukchon Dasil*, a non-fiction essay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 draft translation was generated with ChatGPT-4o, after which a human translator completed the final version, drawing on the AI tool at certain stages of revision and polishing. The final translations fell into three categories: (1) cases where ChatGPT's draft was adopted without modification, (2) cases where the draft served as a basis for revision and refinement, and (3) cases requiring the human translator's creative intervention to reconstruct meaning and convey cultural or emotional resonanc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ChatGPT can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translation, the interpretive and creative input of human translators remains indispensable. When the precision of AI is complemented by the interpretive sensitivity of human translators, translation emerges as a collaborative endeavor rather than a displacement of human agency.

Keywords: Human-ChatGPT collaboration; collaborative translation; ChatGPT; essay translation; Korean-to-English translation

키워드: 인간-ChatGPT 협업, 협업 번역, ChatGPT, 에세이 번역, 한-영 번역

민나래(제1저자)

충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생

pseudo02@naver.com

류기택(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gtryoo@chungbuk.ac.kr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14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15일